

## 엑스포캠 · 엑스포팜 11월 5-6일 SETEC 개최

국내 정밀화학 및 제약산업의 대표적인 전시회인 <엑스포캠 2008>과 <엑스포팜 2008>이 11월 5-6일 SETEC에서 개막된다.

중국, 인디아, 독일, 일본, 방글라데시, 스위스, 미국 등 총 8개국 100여사가 참가하는 전시회는 기술집약적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밀화학 및 제약산업의 수입 의존형 산업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첫 전시회를 개최해 2008년 5회를 맞이한다.

엑스포팜 2008에는 CCCMHPIE(중국의약품수출입상공회)와 CNCIC(중국국가화학정보센터)가 주관하는 중국관을 비롯해 계면활성제 대표기업 오성화학, 한농화성, 애경정밀화학, 니카코리아가, 유기질소화합물 기업으로 일본 Koei Chemical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.

또 행사와 동시에 <계면활성제 기술세미나>도 SETEC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.

11월5일에는 <화장품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>이라는 주제로 아모레퍼시픽 김태한 부장, GMP ISO 22716의 Pascal Gidoin 프로젝트 리더(프랑스),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의 순서로 강연이 진행되며, 11월6일에는 <계면활성제의 최신 기술 동향>에 대해 일본 Nika Chemical의 마쓰다 미쓰오 부분부장이 발표할 계획이다.

11월6일 엑스포팜 컨퍼런스는 총 1개 섹션 4개 강의로 진행되며 <미국 FDA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>라는 주제로 Anchen Pharmaceuticals의 Margaret Choy 부사장, Southern California 약학대학 Frances Richmond 규제과학 프로그램 디렉터, FDALink Regulatory Consulting의 Douglas Lee 대표 등 현지 주요 연사들을 초청해 강연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8/10/30>